의안 번호	77

창원시 폭염 재난 극복을 위한 도시숲 확충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박해정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폭염 재난 극복을 위한 도시숲 확충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박해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의 원 : 박해정・김원일・남재욱・박강우・박영주 박현재・배명갑・변보미・전태완・정은미 홍용채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해마다 심화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이 단순한 기상 현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부상함

❍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인 ‘도심 내 녹지 공간(도시숲)’ 확충이 중요함에도,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림청의 ‘탄소중립도시숲 조성’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폭염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하므로, 정부에 도시숲 확충 및 예산 확대 지원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폭염 등 지구온난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탄소중립도시숲 조성’ 관련 예산의 전면적인 확대를 촉구함

❍ 도시숲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밀한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림청장

창원시 폭염 재난 극복을 위한
도시숲 확충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에서는 지난 8월 2일 낮 최고기온이 42.5도로 기록되면서, 1904년 우리나라가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지 122년 만에 최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산업화의 속도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폭염질환자는 해마다 늘고, 그에 따른 사망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의 일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폭염에 대한 대응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부터 쿨링포그, 스마트 그늘막, 살수차 운행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결국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쳐야 할 때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는 바로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과 함께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심 내 녹지 확충의 성과는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 예로, 대구시는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푸른 대구가꾸기 사업을 통해 30여년 간 약 5400만 그루 나무를 심었고, 녹지는 2007년 2만 1622ha에서 2025년 4만 5265ha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효과로 여름철 기온이 2~3도 하락하는 성과를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이 된 폭염특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림청의 탄소중립도시숲 조성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2687억 원이 넘었던 예산은 2027년 428억 원대로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감축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과거의 부실 사례는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밀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폭염 등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탄소중립도시숲 조성’ 관련 예산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도시숲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집행을 예방할 수 있는 세밀한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2026년 10월 1일

창 원 시 의 회